

'외국인 학생들과 설 명절 따뜻한 정 나뉘요'

전북대, 외국인 유학생에 전통문화·겨울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호응'

전북대학교가 외로운 설 명절을 보내야 하는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해 전통문화와 겨울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대는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단장 이형우)과 연계해 지난 12~13 양일간 무주군 일원을 찾아 설맞이 동계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중국, 인도, 시리아, 모로코 등 17개 국가 40여 명의 유학생들이 참여해 무주 라제몽문을 찾아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고, 뿔날이도 함께 하며 설 명절의 즐거움을 나눴다. 또한 덕유산리조트에서 스키 체험활동을 통해 평창에서 열리고 있는 동계올림픽의 기쁨도 함께 나누는 등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그간 경험할 수 없던 추억을 제공했다.

윤명숙 전북대 국제협력본부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학생들이 우리 문화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대는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단장 이형우)과 연계해 지난 12~13 양일간 무주군 일원을 찾아 설맞이 동계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김민근 기자

전주교대,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 전수식' 국무총리표창 수상

전주교육대학교(최경희 총장직무대리)는 최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개최된 '2017년 국가기록관리 유공포상 전수식'에서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관련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2017년 기록관리 기관평가에서 전국 476개 기관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어 동포장을 수상하게 되었다.

이번 평가에서 전주교대는 탄탄한 시스템 기반을 구축으로 보존중심 기록관리를 수행하고, 기록정보공개 서비스에서 두각을 드러내 4개 분야 기록관리 업무 기반 업무추진실적, 기록관리 실적, 중점추진사례)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중요기록물 보존을 위한 보존서고 확충과 교직원들의 기록관리 동아리 운영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김민근 기자

무주양수발전소와 무주종합복지관 협약·후원품 전달

한국수력원자력(주) 무주양수발전소(소장 이명주)와 사회복지법인 산동회 무주종합복지관은 13일 무주종합복지관에서 설을 맞이하여 지역 독거 어르신과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랑의 후원품 전달식을 가졌다.

2008년부터 매년 명절 때에 무주양수발전소 임직원에서는 쌀 10kg 100포 외 생필품을 무주종합복지관에 전달하고, 양 기관 임직원이 직접 대상자에게 전해 드리며 훈훈한 정을 나누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사회복지증진과 지역사회활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 활동 및 운영, 시설 지원, 자원봉사자 지원, 지역 사회 후원 등에 대하여 협력을 통해 성장 발전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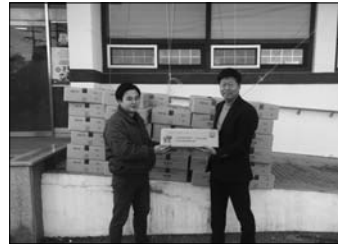
/무주=전문선 기자

부안 행안면 대신에프에스, 사랑의 빵 기부

부안군 행안면 농공단지 내 빵 제조업체 대신에프에스에서는 지난 12일 관내 경로당(25개소) 및 저소득층을 위해 빵 50박스를 기부하며 훈훈한 정을 나누었다.

대신에프에스는 햄버거빵, 피자빵 등을 제조, 2018년 8월 입주한 부안군 행안면 농공단지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으로 꼽힌다.

대신에프에스 신관철 대표는 "설날을 앞두고 소외되기 쉬운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후에도 행안면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안=이옥수 기자

장수고 리틀아이동아리, 쌀20kg 9포 장계면행정복지센터 전달

장수고 리틀아이동아리 학생들(노인산 외 5명)은 지난 12일 설 명절을 맞아 쌀(20kg) 9포를 장계면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다.

리틀아이동아리 학생들은 학교 내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우승 상금으로 구입한 물품을 어려운 이웃과 취약계층에게 전해달라며 "리틀아이동아리 학생들의 뜻을 모아 전달한 물품이 어려운 친구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계면 이길재 면장은 "리틀아이동아리의 나눔의 정이 사회적 전반에 널리 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서, 사회적 약자보호 홍보 캠페인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윤종섭)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무주캠페이트 통합운전자를 상대로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홍보캠페인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일환으로 설 명절을 앞두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신고 등 대국민 홍보를 위해 경찰관 10여명 및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

특히, 치매노인보호를 위해 배회감지기 30대를 보급하고, 실종아동 조기발견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 220여명에 대한 지문사전등록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39개소를 '아동안전지킴이 집'으로 선정하여 아동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을 설명절 행복한 나눔 릴레이 이어져

진안군 진안읍행정복지센터(읍장 전춘성)에 저소득 소외계층과 더불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려는 운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저소득 300가구에 사랑의 떡국 떡 나눔에 이어 진안읍 직원들이 독거노인 등과 결연을 맺고 가정방문과 함께 위문품을 전달했다.

또한 철쭉회(회장 강준희)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5가구에 각 30만 원과 과일을 후원하였으며 현대축산(대표 배희옥, 진안읍 구룡리 소재)에서는 명절마다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수년째 지원하고 있어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나눔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정착기'로 선포한 전춘성 읍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 아래 체계적인 사례관리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의 소중한 뜻에 부응하는 한편,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진안읍은 설 명절을 전후한 나눔 릴레이가 지속되어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나눔문화 정착으로 농촌형 복지전달체계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경찰·춘향로타리클럽, 범죄피해자에 생필품 전달

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는 지난 12일 춘향로타리 클럽(회장 전순자)과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하여 범죄피해자 가정을 방문해 쌀과 라면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남원경찰서와 춘향로타리 클럽은 업무협약 체결 이후로 매년 명절이면 어려운 범죄피해자 등 소외계층 등을 찾아 사랑 나눔 행사를 실천하고 있다.

전순자 회장은 "범죄 피해자들이 심리적·경제적으로 고통 받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다"며 "하루 빨리 피해자가 안정을 되찾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재 남원경찰서는 강력범죄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해 범죄피해 전담 경찰관을 청문 부서에 배치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 등 맞춤형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업무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임상준 서장은 "앞으로 민·관 협력서비스를 통해 소외된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유영철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서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